
건강검진에서의 상복부초음파 검사의 유병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병원 진단방사선과

임상묵, 송환수, 이강우, 구양수

목 적 : 최근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의해 건강에 대한 의식변화가 선진국처럼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복부초음파 검사의 유병률에 관하여 분석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2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본 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방문, 자각 증상 없이 내원하여 상복부초음파를 시행한 남자 349명, 여자 285명 전체 6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자료에 수집된 634명에 대해 의무기록을 검토 분석하였으며 성별, 연령, 직업, 흡연여부, 음주여부, 운동여부, 거주지 구분, 초음파검사소견의 정상, 비정상 분포, 장기별 질환 분석, 간질환 중 지방간에서의 비만, 간기능검사, B형 간염 표식자와의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처리와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결 과 : 전체 대상자 634명을 연구 분석한 결과 남자 55%, 여자 45%로 분석되었으며 연령분포의 경우 50~59세가 193명(30.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특성인 경우 직업별 분포는 “주부” 25.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음주상태의 경우 “전혀 마시지 않는다” 52.5%, “주 1~2회 음주”的 경우 27.5%로 분석되었다. 또한 흡연여부의 경우 “피우지 않는다” 59.1%, 운동여부의 경우 “운동하지 않는다” 58.5%로 나타냈으며 거주지의 경우 “도시” 경우 67.5%로 농촌의 경우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초음파 소견의 경우 정상 62.5%, 비정상 37.5% 분석되었으며 또한 비정상 초음파 결과에서 639명 중 간질환 27.9%, 담도계 3.5%, 신장 3.9%, 비장 0.2%, 복합적 질환 2.1%로 분석되었으며 각 장기별 비정상질환의 빈도를 경우 간질환의 경우 지방간이 26.5%, 담도계는 담석증 2.7% 신장은 신낭종 3.8%로 각 장기별 질환에서 각각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비만, 간기능검사, B형 간염표식자의 상관관계에서는 지방간에서의 비만과는 유의성은 낮게 분석되는 반면 지방간에서 간기능검사와 B형 간염 표식자와의 관계에서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4$). 또한 위의 질환분석의 유병률의 경우 다른 보고 등과 같은 결과분석을 나타내어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 본 연구분석의 결과 수진자 634명중 비정상 37.5%로 분석되었으며 질환분포의 경우 간질환 27.9%, 담도계 3.5%, 신장 3.9%, 비장 0.2%로 분석되었으며 건강검진에서의 초음파의 경우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상소견을 빈도에 따라 분석하면 지방간 26.5%, 신낭종 3.8%, 담석 2.7%, 간낭종 1.4%로 분석되어 위의 질환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사와 더 많은 검사시간이 필요하며 향후 전국적인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